종교벽 허물기 '화합잔치'

제1회 종교예술제 9월 23일 개막

음악·미술·영화·세미나등 통합

우리나라의 각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듣고 그림을 감상하고 영화를 관람한다면…. 또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서로 솔직한 토론을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면….

종교다원사회인 우리나라 각 종교인간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1회 종교예술제가 열린다. 오는 9월 열리게 되는 종교예술제는 기존에 각각 열렸던 음악제 미술제 외에 영화제와 학술세미나 등이 추가된 종합예술행사로 치러진다.

9월 23일 저녁 7시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열리는 음악제 1부는 불교에서 국악인 김성녀 바리톤 이재웅씨가, 개신교에서 소프라노 박미혜 바리톤 고성현 가톨릭에서 최인배(테너) 김경희(소프라노)씨 등이 출연해 '찬미의 나라' '청산은 나를 보고' 등을 부른다. 2부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4종교로 구성된 연합합창단 300명이 나와 '그리운 금강산' '경복궁타령' '아리랑' 등을 연주한다.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미술제는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6개 종교 미술작가들의 회화 조각 서예 등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영화제는 9월 29일~10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하루 두차례씩 열린다.

불교에서는 지난 89년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대상을 차지했던 배용균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과 베르톨루치(이탈리아)감독의 '리틀 붓다'를 상영한다. 개신교는 '바베트의 만찬' '빛은 내 가슴에', 가톨릭은 '한줌의 시간속에서' '희생'이 소개된다.

9월 2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되는 학술세미나는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기조강연으로 △남북한의 삶과 나눔의 정신 △통일과 이데올로기의 청산 △한국사회의 이질성과 치유대책 △도덕성 회복방안 등의 소주제로 진행된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92〉

산은 하늘 괴는 기둥

山作撐天珠 (산작탱천주) 산은 하늘 괴는 기둥이 되고
洞開出水門 (동개출수문) 동구는 물 흘리는 문으로 열렸다
箇中蕭寺在 (개중소사재) 이런 가운데 쓸쓸한 절 하나
淸磬遠穿雲 (청경원천운) 맑은 풍경소리 먼 구름을 뚫다

이 시도 월파대사의 시이다. '즉음산경(卽吟山景)'이라 제한 두 수 중의 한 수이다. 산의 경치를 즉석에서 읊는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별다른 수식이 있을 수 없다. 그저 산사가 있음을 알리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써 모든 표현을 다했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시인이기 이전에 스님으로서의 본 모습이다.

이 시는 상하의 공간을 맞물리면서 그 중앙에 절을 포진시킨 구도이다. 높은 산은 하늘을 떠받쳐 괴어 있고, 골의 물은 이 산의 닫힘을 여는 문의 구실을 한다. 하늘과 땅의 공간을 완전히 대립시키면서, 그 공간을 주택의 한 구조물로 보았으니, 우주를 하나의 집으로 보는 동양인의 사유를 교묘히 시화하였다 하겠다.

우주라는 한자를 '집 우' '집 주'라 하여 하나의 집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사유체계를 생각한다면, 이 시에서 산을 기둥으로, 물길 따라 뚫린 동구를 문이라 한 구상은 의미 있는 맞물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우주를 축소한 이 조용한 공간에 한 점으로 위치한 절을 중앙에 배치하여 중심축으로 삼았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신적으로 삶의 핵심만이 아니라, 자연물의 구조로도 항시 중심적 위치에 있음을 암시한다 하여 지나칠 것도 없다. 절이란 이렇듯 중심의 상징으로 위대한 것이로되 오히려 조용함이나 쓸쓸함으로 다가오니, 이 또한 조용함의 안식으로 포용함이 아닌가.

끝 구의 맑은 풍경은 다시 적막을 일깨우는 파적이다. 항시 고요로 잠재우는 한적이라면 삶을 동적 움직임으로 상징지워져야 할 진리의 쪽으로 갈 수는 없다. 이 맑은 풍경소리는 이 깨우침의 상징이다. 땅 위로만 울려퍼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구름에까지 닿는 것이다. 그저 닿고만 만 것이 아니라 뚫고 있다. 여기서 '멀다'의 한 글자, '뚫다'의 한 글자를 의미 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땅 위에서 이는 종소리가 하늘로 이어진다. 역시 상하의 공간을 수직으로 잇고 있다. 제목은 가볍게 우연히 읊다 하였지만, 이 시는 이렇듯 절이라는 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상하 공간의 대자연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사의 시는 꾸밈이 없는 단순한 읊음 같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진리를 담고 있다. 대사의 서경적 시는 좁은 화폭에 이 대자연을 조용히 수용하고 있는 한 폭의 그림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범패도 고유코드분류

문화재硏 세분화작업 자료 영구보존 가능

전통불교음악인 범패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게 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범패를 비롯 궁중음악 정악 민속악 탈춤 등 한국전통음악에 관한 제반 자료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통일화 세분화시켜 고유 코드번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소리로만 구전되던 범패 등 대부분의 전통음악들이 자료로써 영구히 보존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주제별로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음악계 등 관계분야에서의 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만 3년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은 자체조사작업과 지정조사작업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서울대 음악대학 자료실 및 관련 음악단체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CD로 복제하고 장르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이번 코드화작업은 음악의 용도에 따라 크게 9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세분화해 분류코드는 000-000-00과 같이 8개 단위로 번호를 부여했다. 불교의식에 쓰이는 모든 범패와 기악을 총청리해 민속악으로 대분류된 불교음악은 총류/경제(서울 경기도 범패)/ 영제(영남 범패)/완제(전라도 범패)/탁발음악으로 세분화됐다. 예를 들어 '영산재시련 응호게'의 경우 코드번호는 '711-301-01'이다.

분류작업에 참여한 법현스님(동국대 강사·국악과)은 "이번 코드화작업으로 방대한 불교음악이 체계적으로 분류됐으나 현재 CD작업은 전체의 20%정도밖에 완료되지 못했다. 남은 80%를 CD화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향후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범패등 불교음악을 들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숙〉

불화집 낸 박정자씨

불화 27년 첫정리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불화란 그리고 싶다고 해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기 싫다 해서 그려지지 않는것도 아니지요. 오로지 일념에서 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힘, 신심에 의해 그려집니다. 또 부처님 모습을 원만하게 그려냈을 때의 희열은 어디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준보유자(인간문화재 후보) 박정자씨(59)가 불화인생 27년을 정리하는 첫 불화집을 펴 냈다. 이 불화집에는 박정자씨가 그동안 그려온 불화 1천5백여점 가운데 가려뽑은 65점이 실려 박씨 특유의 세필의 섬세함과 원만 자재한 얼굴 묘사를 감상할 수 있다. 작품집의 이름을 고민끝에 〈諸佛歡喜〉로 정했다는 박씨는 "부처님도 무척 기뻐하실 것"이라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박정자씨는 처음 낸 이 불화집을 스승 만봉스님(인간문화재)의 미수(88세)를 기념해 봉헌했다.

박정자씨가 불화와 인연맺은 것은 지난 71년. 동양화를 공부했던 그는 우연히 만봉스님의 불화전시회를 보고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는다.

"만봉스님의 탱화를 보는 순간 화면을 꽉 채운 강렬한 색채와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에 포만감과 환희심이 느껴졌습니다. 저것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바쳐할 일이라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더군요."

그길로 박씨는 만봉스님의 제자가 되어 남자도 견디기 어렵다는 시왕초 천왕초 여래초 수천장을 그려내는 10년간의 습화기간을 훌륭히 견뎌내고 연이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85년 전승공예대전에서 금니로 그린 가사탱화로 특별상을, 86년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붓에 순금가루를 묻혀 그린 '금니부모은중경'으로 제11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87년에는 제48호 단청장 후보로 지정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불화를 그리고 있는 박정자씨.

요즘 박정자씨는 불화박물관 건립준비에 여념이 없다. 올 9월에는 서울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고향인 나주로 내려갈 예정이다. 나주시 다시면에 땅 2200평을 구입해 놓았다. 그곳에 건립할 불화박물관에는 소장 작품의 상설전시장과 함께 전통불화를 가르치는 불화학교도 마련할 예정이다. 〈숙〉

문화재

옥룡사지서 나온 인골 도선국사의 것 확실

지난 3월 전남 광양 옥룡사지서 발굴된 인골이 도선국사의 유골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다. 순천대박물관 발굴조사단 최인선 책임연구원은 최근 문화사학지(6-7호 합본호)에 '옥룡사 도선의 부도전지와 석관' 논문을 발표하고 "옥룡사 석관안의 인골은 석곽 주변의 유물과 인골상태, 당시 葬法 등으로 미루어 도선국사의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본지 119호 15면 참조〉

한편 전남도는 6월 24일 옥룡사지를 전남도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중원미륵사지 명칭 '대원사지'라 부르자

중원 미륵사지는 대원사지(大院寺址)로 고쳐불러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네스코 충북협회 주최로 27일 열린 '내 고장 문화유산의 현황과 과제' 주제 세미나에서 김영진교수(청주대)는 "미륵리사지 발굴결과 대원사지로 고증됐는데도 명칭이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문화재 연구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해 충북지역 문화재 명칭중 일관성이 없거나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고 문화재 안내문도 오류투성이라는 것이다.

문화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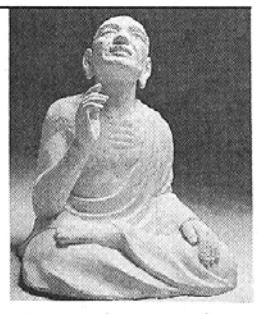
3개국어 문화재 엽서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청소년 수학여행단 및 관광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라문화' 문화재 사진엽서를 제작 발매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판과 함께, 날로 급증하는 일본관광객과 서양인들에게 경주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일본어판과 영어판도 함께 펴냈다. (0561)771-1950

정경용 조각전 '호평'

조각가 정경용씨가 2~8일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첫번째 불교조각전을 가졌다. 제14회 불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인 종정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정씨는 이번 조각전에서 나한, 관세음보살상 등 50여점의 작품을 전시해 호평을 받았다.



◇정경용作 '제14라한존자' 도조

MBC 베스트극장 극본 최우수작

'전등사' 쓴 이한호씨

"나체여인상 설화 창작동기"

"전등사의 나체 여인상은 너무도 인상깊었습니다. 설화 속 도편수의 집착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인연의 고리를 상상의 세계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빗나간 사랑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전등사 설화가 작품의 모티브이며 등장인물 홍목 효임 윤중의 삼각관계 설정이라든가 현대의 주인공이 설화를 들으며 과거로 돌아가는 상황 설정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씨의 펜끝에서 새롭게 살아나온 이야기다. 〈전등사〉는 MBC 베스트극장 올 겨울특집으로 제작돼 방영된다. 〈연〉

제6회 MBC 베스트극장 극본공모 최우수작 〈전등사〉의 작가 이한호씨(32)의 창작동기다. 주인공 '홍목'이 일본에서 전등사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해 광해군 폭정시대의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 '효임'이란 여인과의

제2회 불교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II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자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